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한진아(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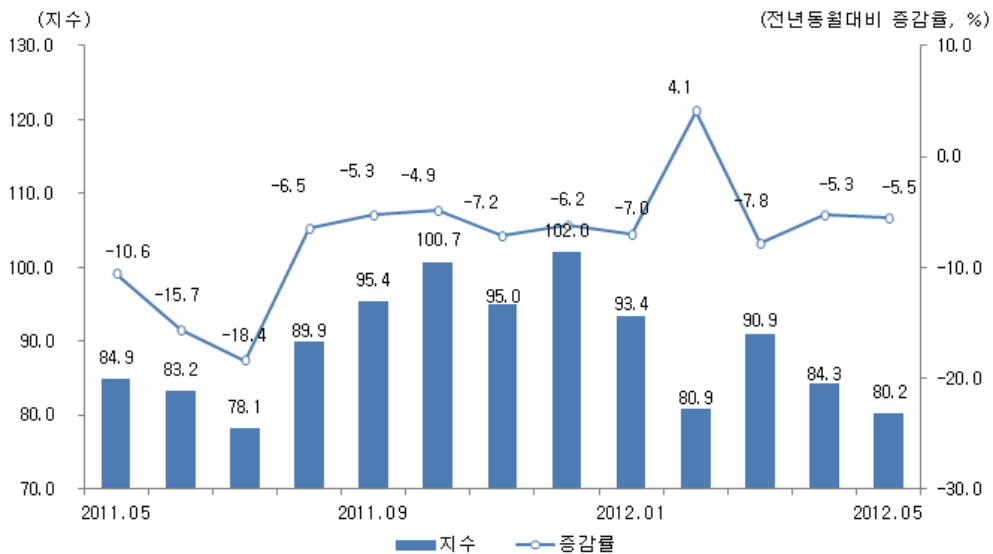
양승희(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소비	<p>서울의 5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9%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달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것은 백화점의 경우 패션용품이 54.6%, 대형마트는 식품 54.1%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p> <p>전년동월대비 부문별로 판매액은 백화점 4.9% 증가 대형마트 0.2% 감소하였으며, 권역별로는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및 강동구가 1위, 그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인 것으로 나타났다.</p>
고용	<p>서울의 5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호전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합,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고,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p> <p>그러나 연령별 취업자 중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 취업자 연령별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p>
물가	<p>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8%로 지난달에 이어 2%대를 나타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항목은 생선, 채소,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으로 14.0% 상승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신선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p> <p>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가 전국에 비해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부동산	<p>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어 보합하였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매매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타 지역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신규유입수요가 줄어들면서 물량이 적체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p>

| 생 · 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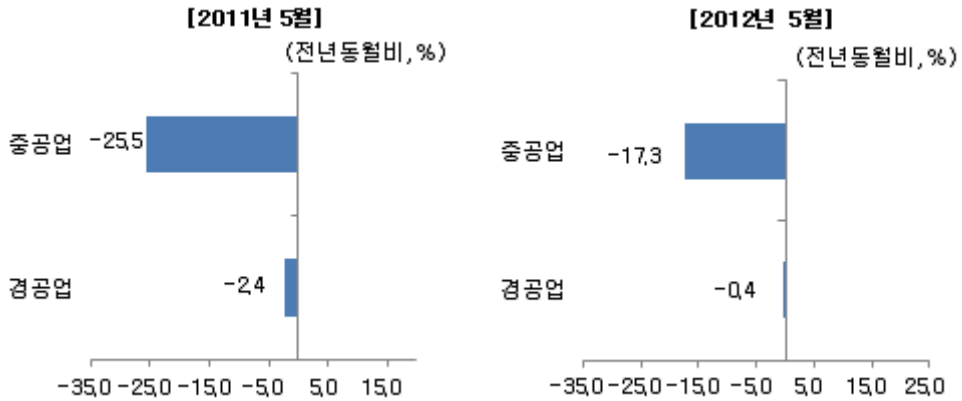
서울의 5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5월 산업생산지수 중공업 부문의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서울의 5월 산업생산지수는 79.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5.5%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7.3%,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4%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18.3%), 전기장비(-34.7%) 각각 감소하였으며, 섬유제품(22.3%) 각각 증가
 - 중공업, 경공업 부문 모두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5월 광공업 자동차 및 반도체 부분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5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5.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6.8%), 기계장비(-2.7%) 등에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동차(8.8%), 반도체 및 부품(3.4%) 등 각각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4.4%), 협회·수리·개인(-3.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7.4%), 금융·보험(2.9%) 등이 증가하여 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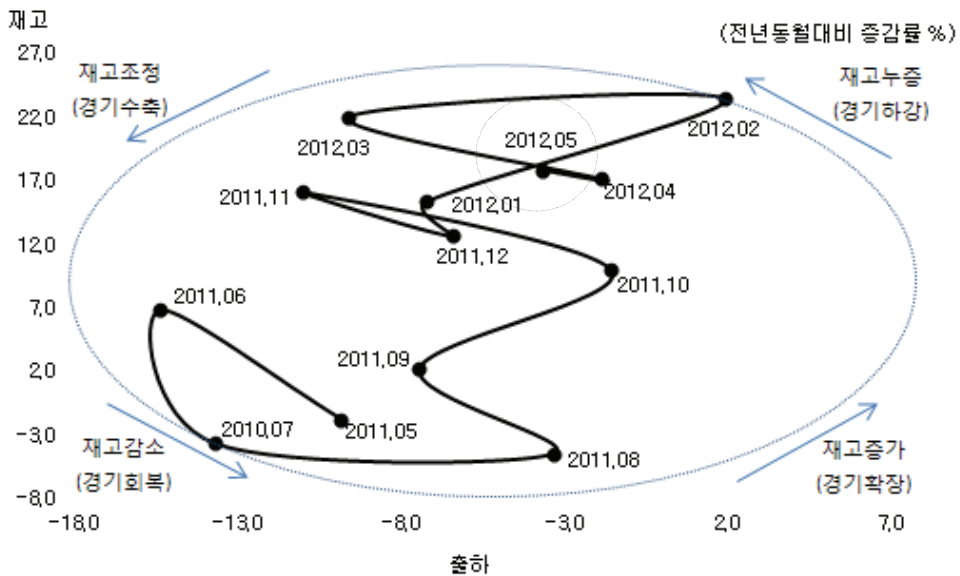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5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누중 단계

- 서울의 5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 하강기
 - 서울의 5월 재고지수는 180.4(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
 - 서울의 5월 출하지수는 80.5(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3.8%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누중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경기수축)	재고감소 (경기회복)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중 (경기하강)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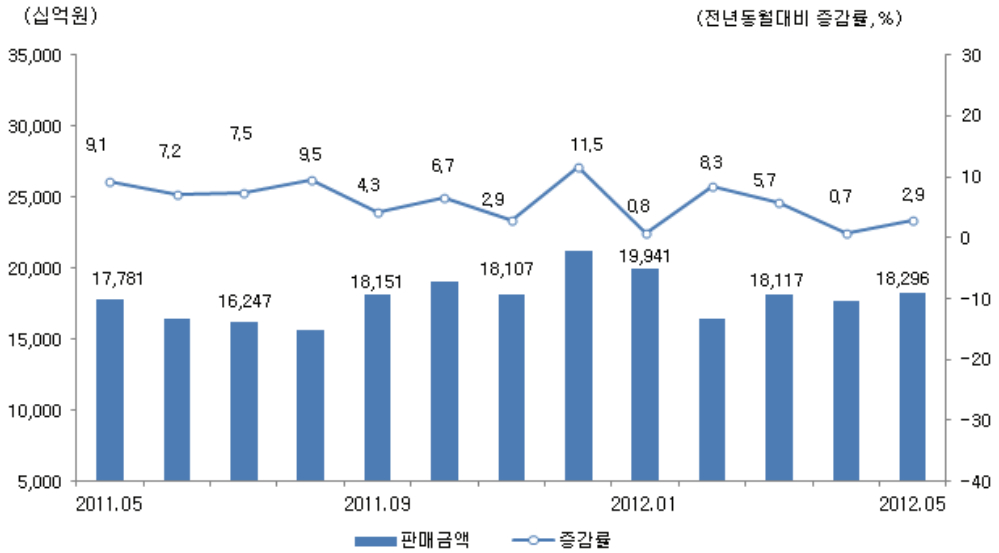
| 소 · 비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5월 전년동월대비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백화점 중심으로 판매액 증가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8천297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는 2.9% 증가
 - 전년동월 대비 백화점은 4.9% 증가, 대형마트는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종합소매업 매장면적은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이 가장 넓은 593,511㎡로 34.5%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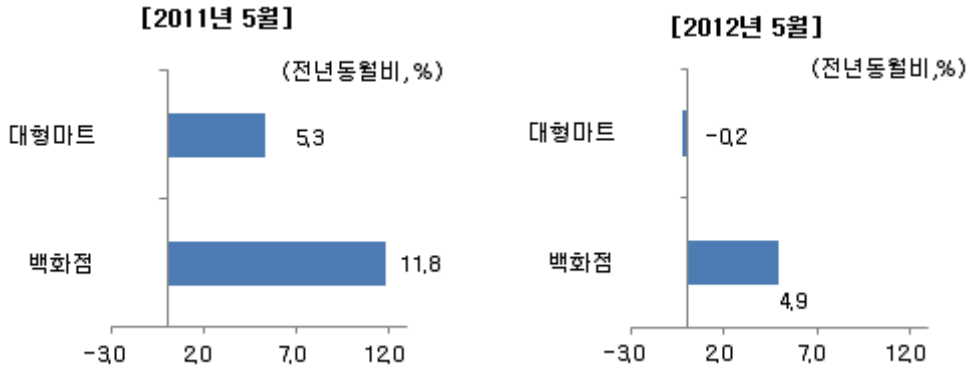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백화점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이 1위
 - 백화점 판매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4.6%)이며, 대형마트는 식품(54.1%)인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1개점 평균 매출액은 400.8억원이며, 대형마트는 95.6억원임
 - 권역별로는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6.2%인 6천629억원을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순으로 나타남

- 전국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전국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대형마트는 2.6% 감소
 - 유형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의복 등 준내구재(1.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4%),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4.7%)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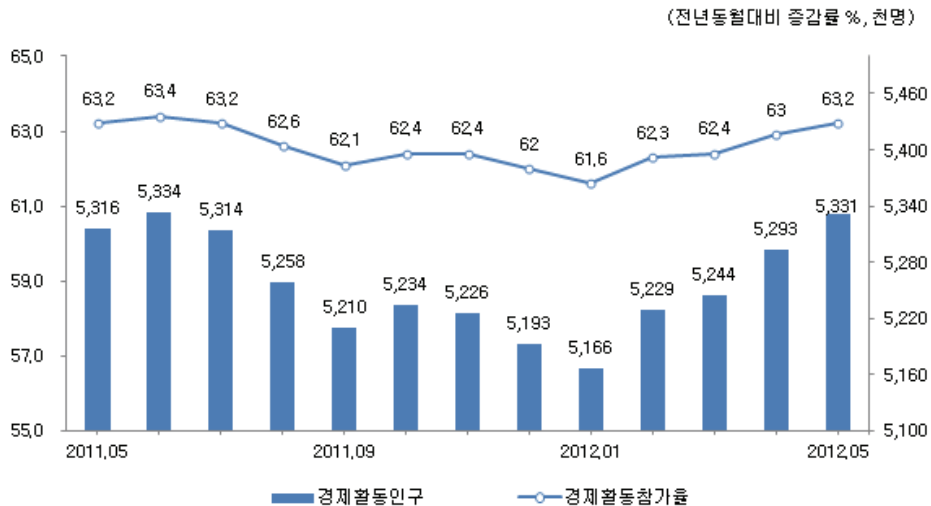
서울의 5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서울의 5월 경제활동참가율 평균(62%) 유지

- 서울의 5월 15세 이상 인구는 8,4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명(0.2%)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3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0.3%)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전년동월과 보합
- 비경제활동인구는 3,0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0.1%)이 증가

■ 전국의 5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 전국의 5월 15세이상인구는 4,151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만6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9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명(1.8%)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자는 51.3%로 0.3%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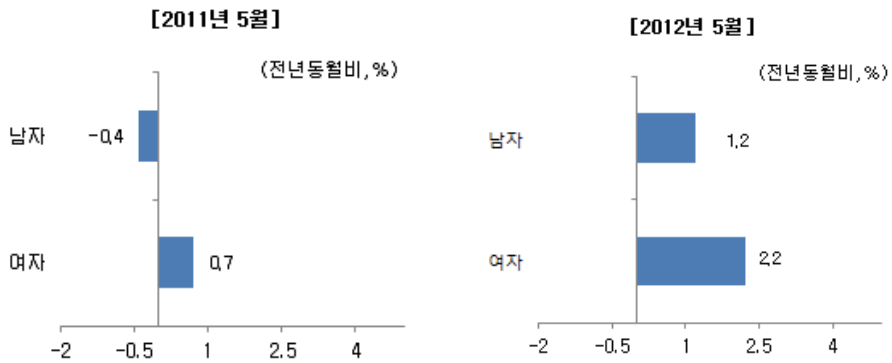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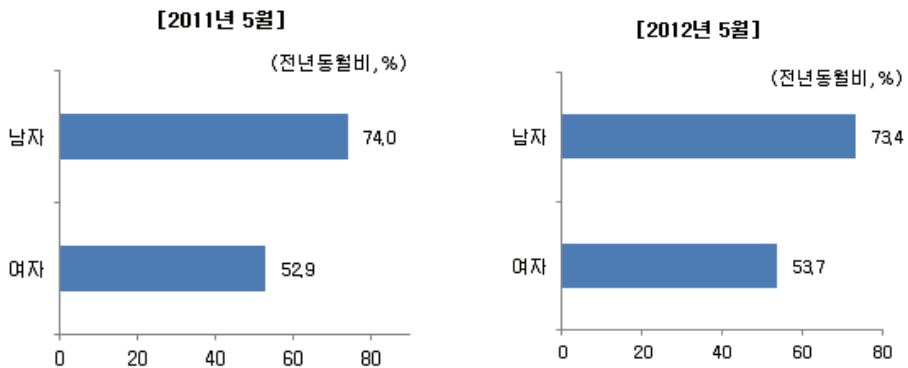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5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하락, 여자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74천명, 여자는 2,3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7% 하락, 여자는 2.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2%, 여자는 53.3%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1.0%p 하락, 1.2%p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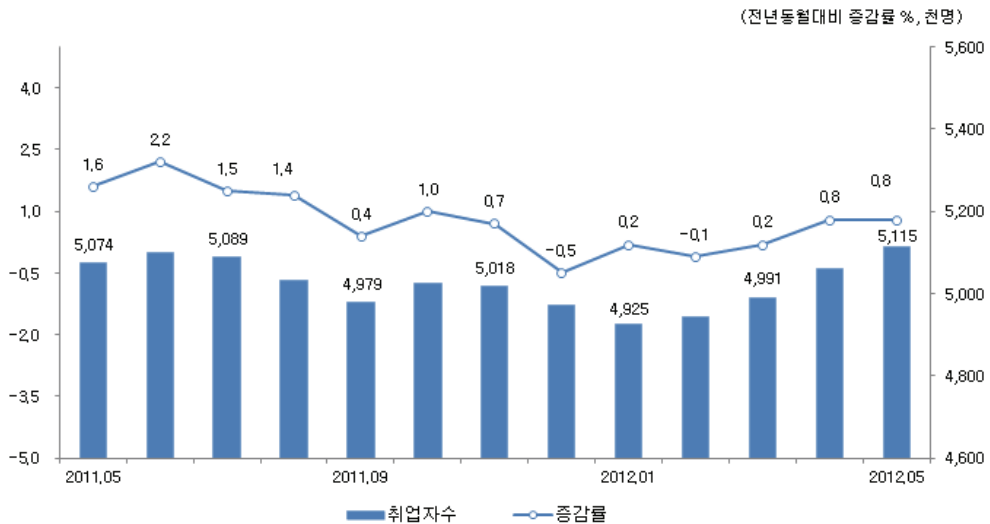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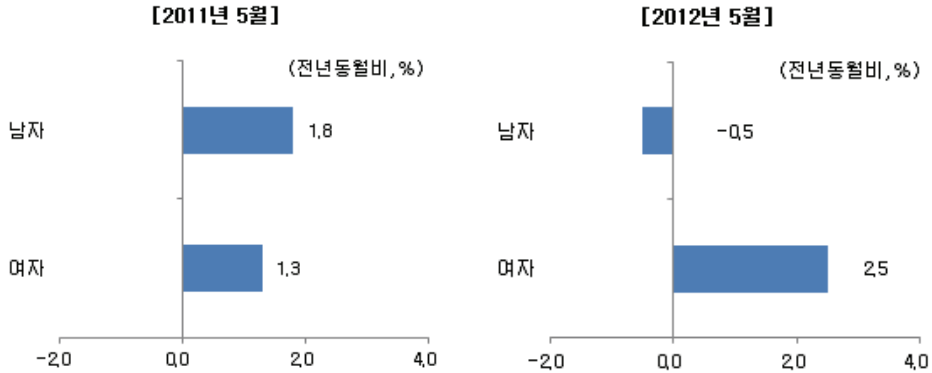
서울의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5월 여성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유지
 - 서울 5월 취업자는 5,1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천명(0.8%)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56천명, 여자는 2,2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4천명(-0.5%)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56천명(2.5%)이 증가
- 전국의 5월 남, 녀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5월 취업자는 2,513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2천명(1.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6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6천명(1.9%) 증가하였고, 여자는 1,057만1천명으로 19만6천명(1.9%)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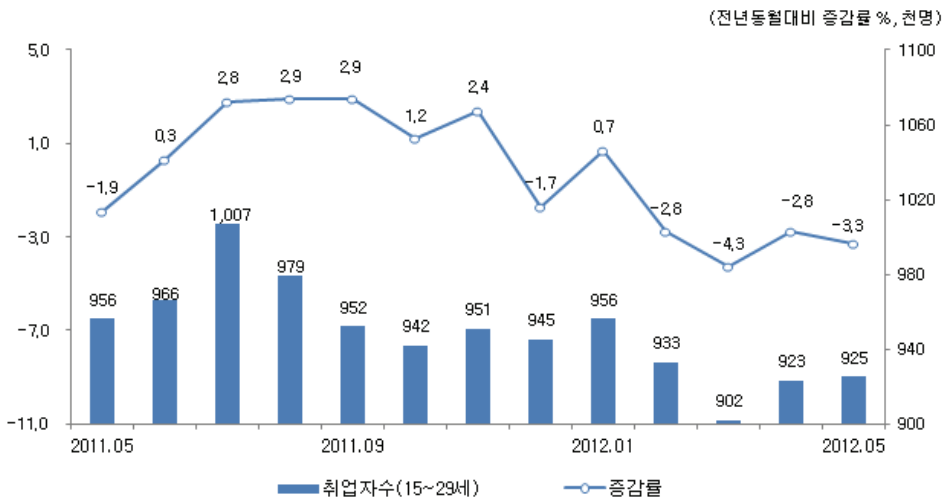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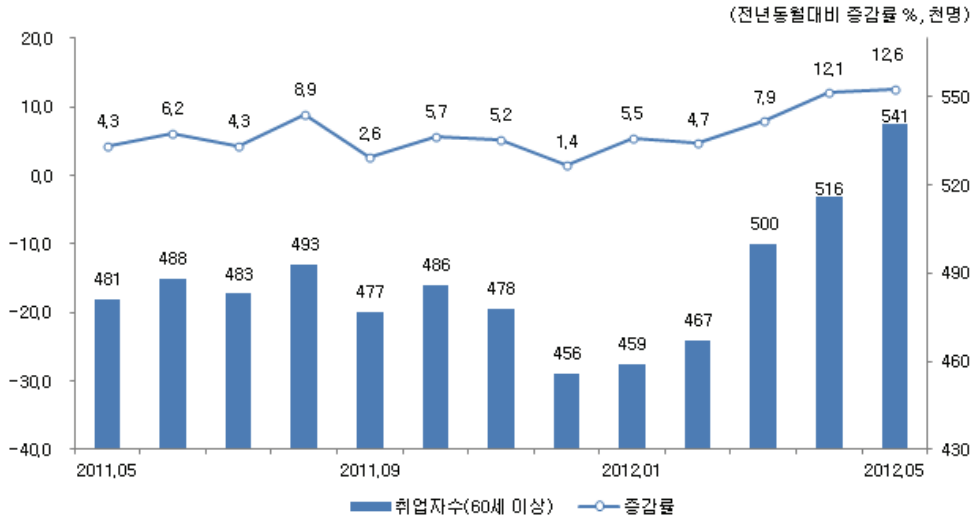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청년층(15세~29세)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5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하여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서울의 5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8%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의 취업자는 감소하는 등 연령별 취업자 간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 농림어업, 건설업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8천명(3.9%), 도소매·음식숙박업 13천명(1.0%) 이 각각 증가
- 반면, 농림어업 1천명(-7.0%), 건설업 20천명(-5.2%), 제조업 15천명(-2.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4천명(-1.7%)은 각각 감소

■ 직업별로 농림어업, 사무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천명(54.2%), 사무종사자 63천명(6.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5천명(1.7%)이 각각 증가한
- 반면, 관리자·전문가 45천명(-3.1%), 서비스·판매종사자 6천명(-0.5%)은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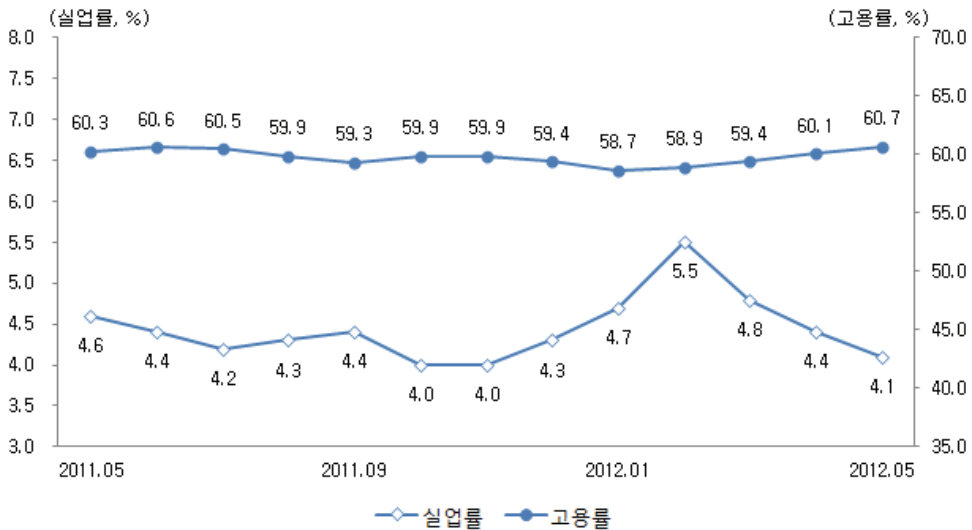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천명(-0.6%), 무급가족종사자는 11천명(-6.3%)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84천명(3.7%)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3천명(-0.3%), 일용근로자는 22천명(-5.1%)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서울의 5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 서울의 5월 고용률 꾸준한 상승세 유지
 -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반면, 여자는 51.8%로 1.0%p 상승
 -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60.5%)에 비하여 0.2%p 높은 수준임
- 서울의 5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1.0%p 높은 수준
 - 서울의 5월 실업자는 2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명(-11.1%)이 감소
 -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로 전년동월대비 0.6%p, 여자는 3.6%로 0.3%p 각각 하락
 - 서울시 실업률은 4.1%로 전국(3.1%)에 비하여 1.0%p 높은 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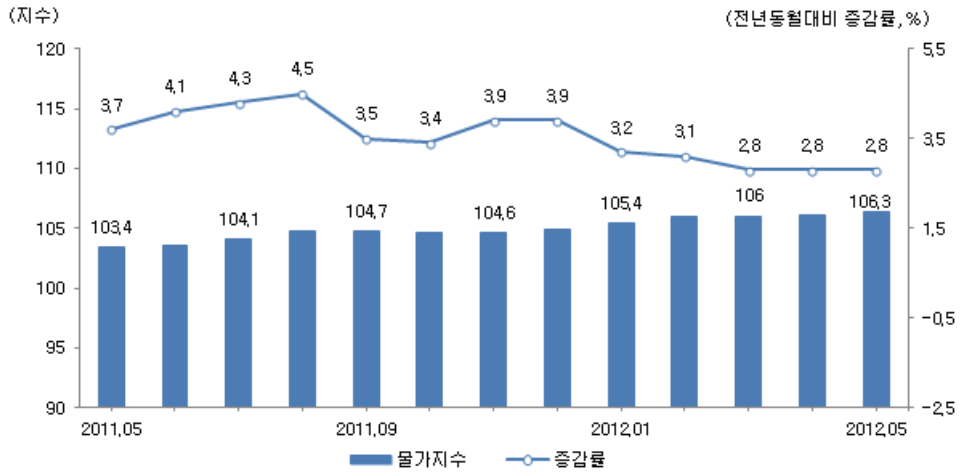
| 물 · 가 |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3개월 연속 2%대 시현
 - 서울의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6.3(2010년=100.0)으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부문을 보면,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3.9%), 통신부문(-3.4%), 오락 및 문화부문(-0.3%) 각각 하락하였으며, 그 외의 부문은 모두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4.3%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7.1%, 공업제품은 3.5%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그 중 집세는 4.6%, 공공서비스 1.8%, 개인서비스 0.4%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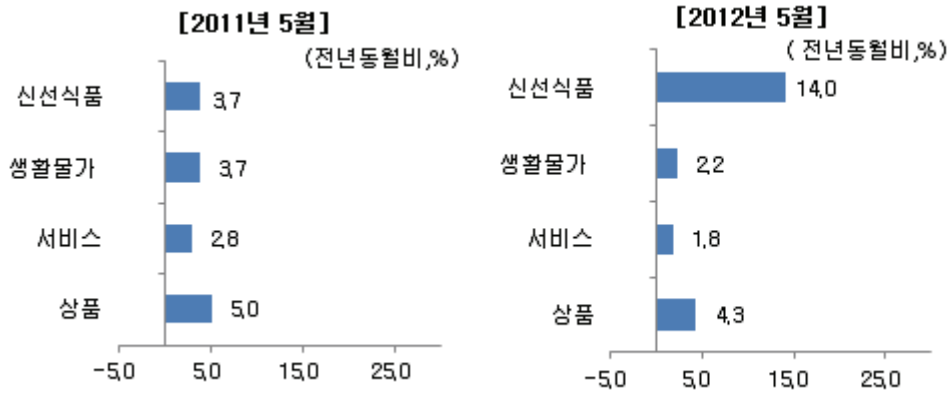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0% 상승

- 전국 5월 소비자물가 경북, 충남 등 8개 시도를 중심으로 상승
 - 전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2010년=100)으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로는 2.5%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은 2%대 시현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경북, 충남 등 8개 시도는 0.3~0.5%씩 상승하였고,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는 0.1~0.2%씩 상승하였으며, 전남은 포함
 - 특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시별로 전월과 비교하면, 포항과 보령은 0.8%, 0.5%씩 상승하였고, 부천, 안산 등 25개 도시는 0.1~0.4%씩 상승하였으며, 성남과 제주는 변동이 없었으며, 여수는 엑스포 기간(5.12~8.12) 시내버스료 무료화 등의 영향으로 0.5%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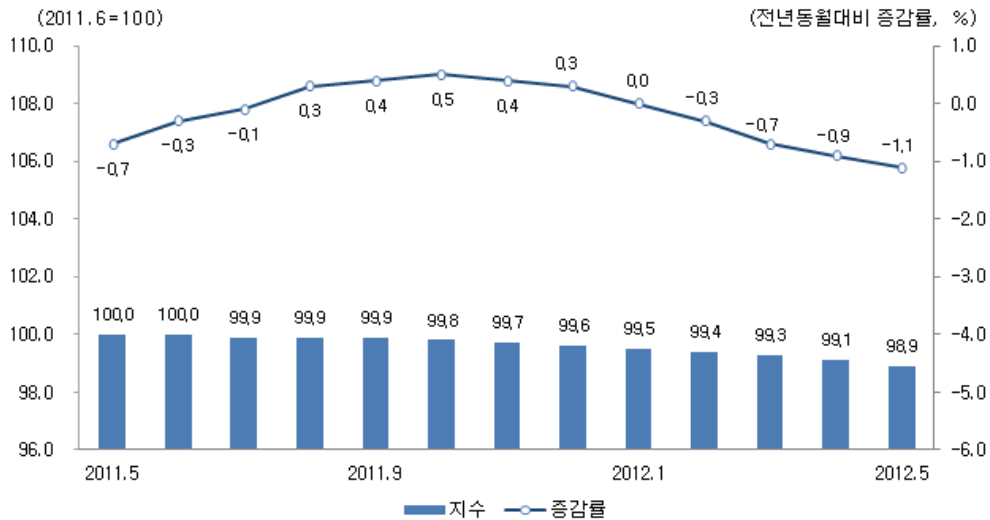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7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수요자들의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7개월 연속 하락세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3%, 0.1% 하락
- 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되며 전월대비 보합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 전월대비 보합
 - 수도권은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어 전월대비 0.2%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2%, 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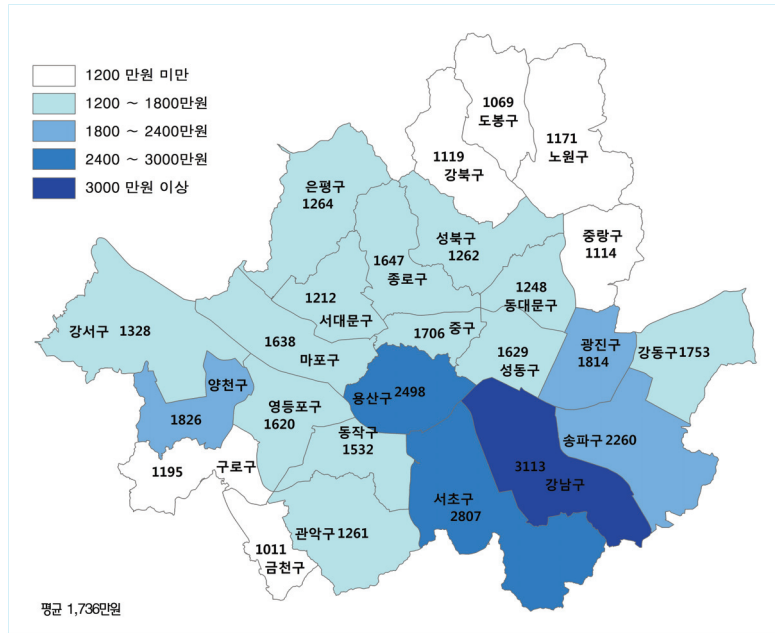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광진구와 종로구에서 상승한 가운데, 마포구와 노원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 광진구는 아파트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단독과 연립주택으로의 수요가 발생되며 군자동과 중곡동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 노원구는 실수요자들의 매수시장 관망세가 확대된 가운데, 인근 남양주시 별내지구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기존 단지의 물량 적체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0.3% 하락
 - 마포구는 역세권 인근으로 전세나 월세로의 수요만 간혹 있을 뿐 매매거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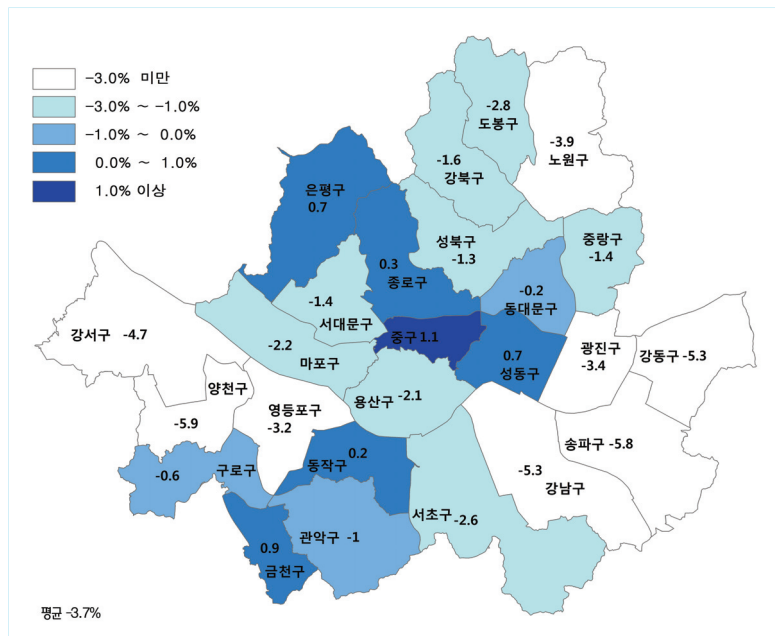
- **강남지역은 하락폭이 소폭 축소된 가운데, 서초구와 양천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 대비 0.2% 하락**
 - 서초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매도자들의 문의만 증가할 뿐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지속되며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 등을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5% 하락
 - 양천구는 예년과 달리 투자수요와 학군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급매물조차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며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월대비 0.3% 하락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35.7만원으로 전월대비(1740.4만원)대비 하락하여 15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4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3,113만원), 서초구(2,807만원), 용산구(2,498만원), 송파구(2,260만원), 양천구(1,826만원), 광진구(1,814만원), 강동구(1,75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1만원), 도봉구(1,069만원), 중랑구(1,114만원), 강북구(1,11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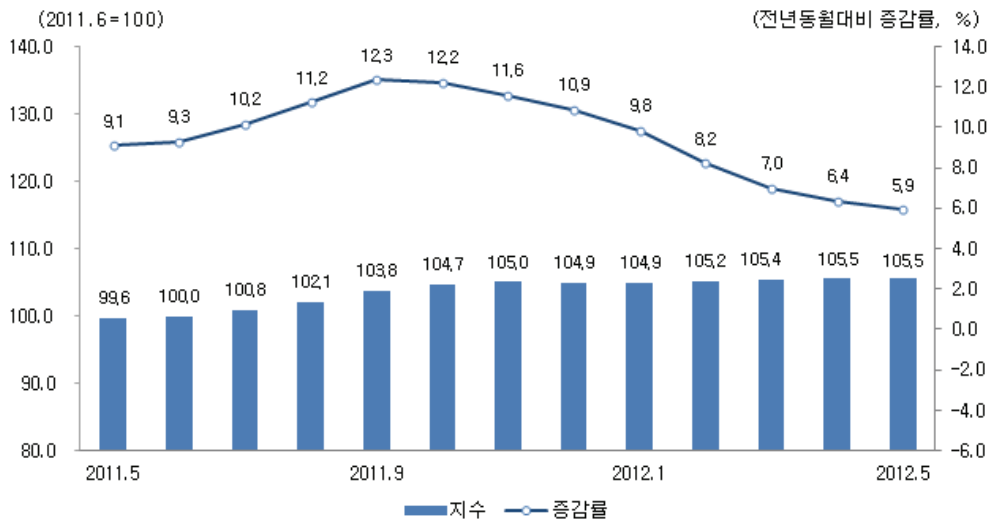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윤달로 인한 신혼부부 전세수요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어 보합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0.1% 하락한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2%, 0.1% 상승

■ 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윤달로 인한 이동수요의 감소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어 0.2% 상승
-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3%, 0.4% 상승하며 상승폭 둔화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중랑구와 광진구 등에서 상승하고 노원구, 성동구 등에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0.1% 상승**
 - 중랑구는 인근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임대인들의 월세선호 현상으로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대비 0.5% 상승
 - 광진구는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단독과 연립으로의 수요가 발생되며 전월대비 0.3% 상승
 - 성동구는 4월 입주를 시작한 금호동 래미안하이리버 등 신규단지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전세물량이 적체되며 전월대비 0.2% 하락

- **강남지역은 금천구와 관악구 등에서 상승한 가운데 서초구, 강동구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험에서 하락으로 전환**
 - 금천구는 인근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어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 지역으로 소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6% 상승
 - 서초구는 인근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의 유입수요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0.3% 하락
 - 강동구는 고덕시영 재건축 이주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하향조정 되면서 전월대비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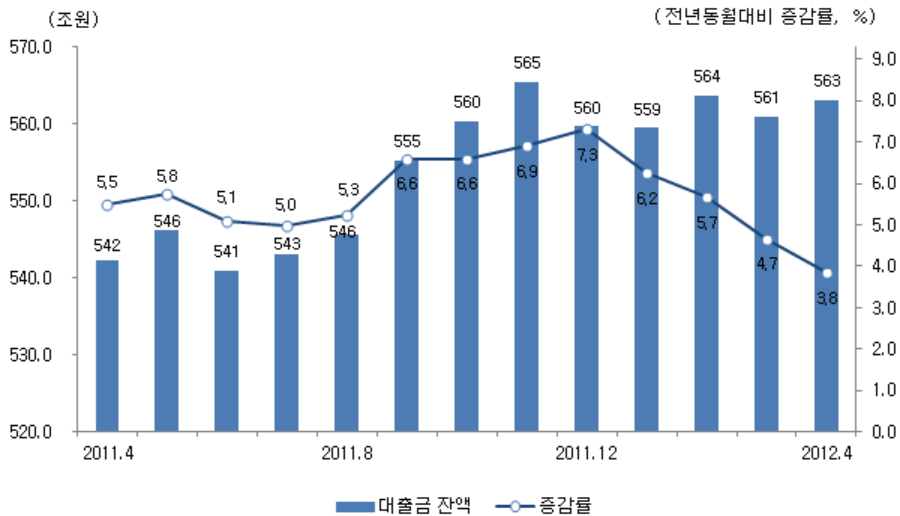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2.3만원으로 전월대비(843.2만원) 소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276만원), 서초구(1,211만원), 송파구(1,009만원), 용산구(977만원), 광진구(932만원), 중구(928만원), 종로구(890만원), 마포구(885만원), 양천구(884만원), 성동구(86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63만원), 도봉구(577만원), 강북구(588만원), 중랑구(63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 · 계 · 대 · 출 |

서울의 4월 은행의 가계대출 전월대비 소폭 증가

- 4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증가
 - 4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3조 700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1,414억원(0.38%)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6조 7,400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6조 3300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2.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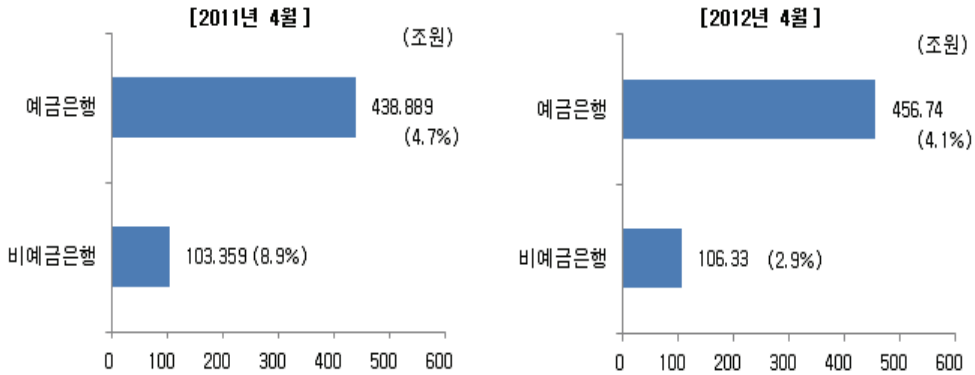
- 4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4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20조 1,891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3,196억원(0.52%)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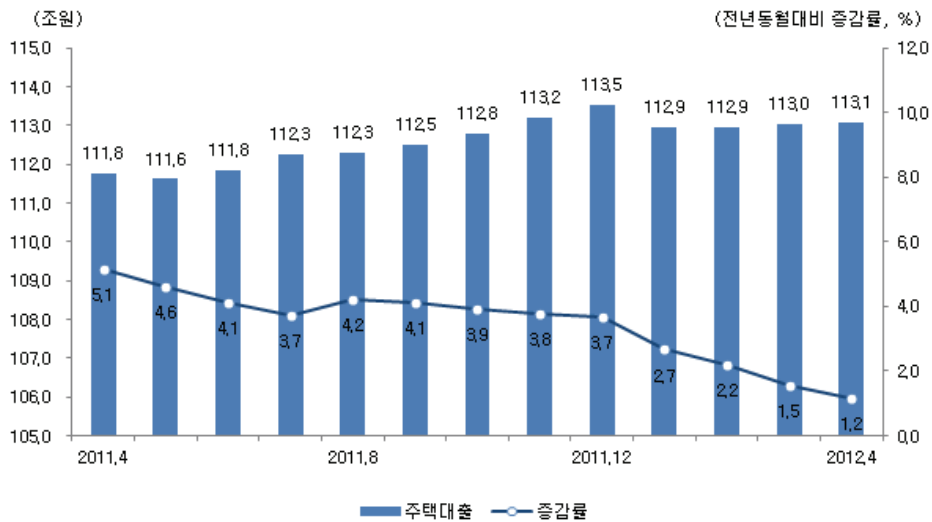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4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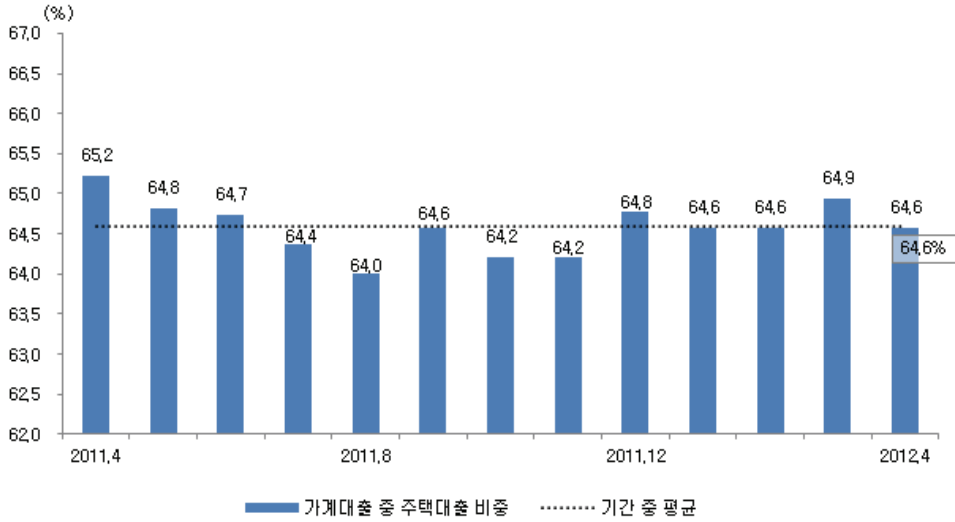
- 4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582억원으로 전월대비 133억원(0.1%)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3조 63억원(64.6%)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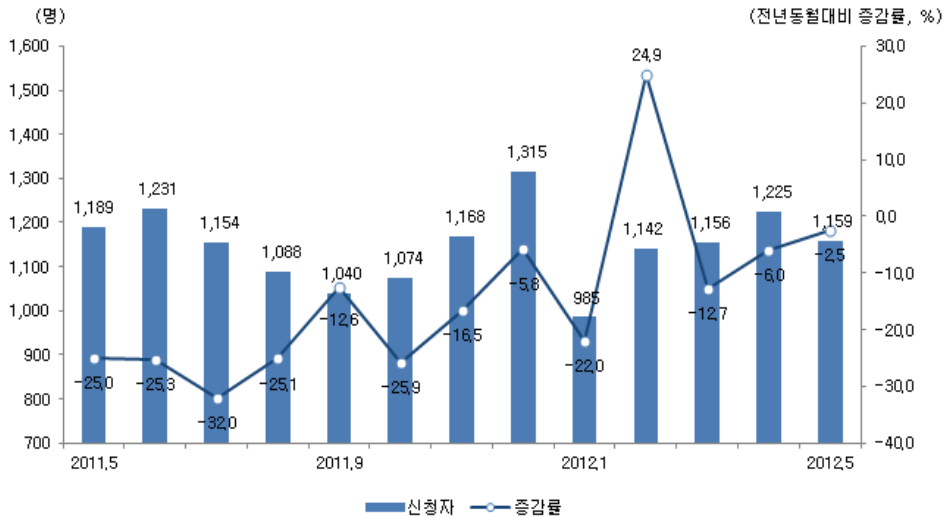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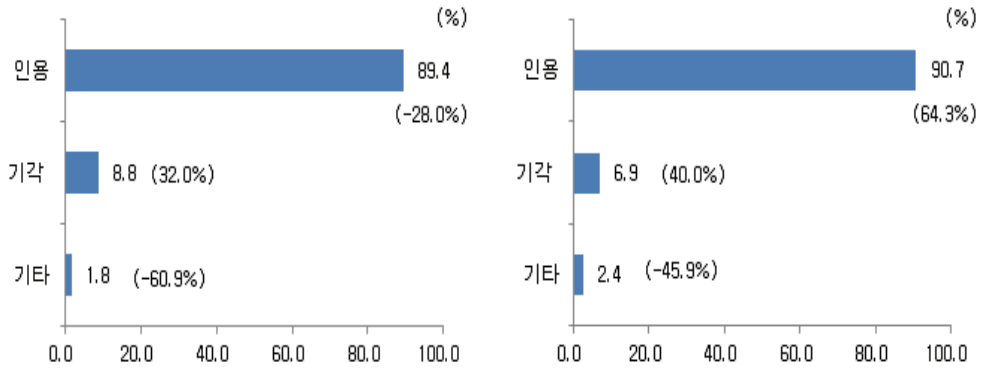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 5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159명으로 전월대비 5.4%, 전년동월대비 2.5%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8.8%로 전월대비 42.5%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6.9%로 전월대비 41.5%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5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5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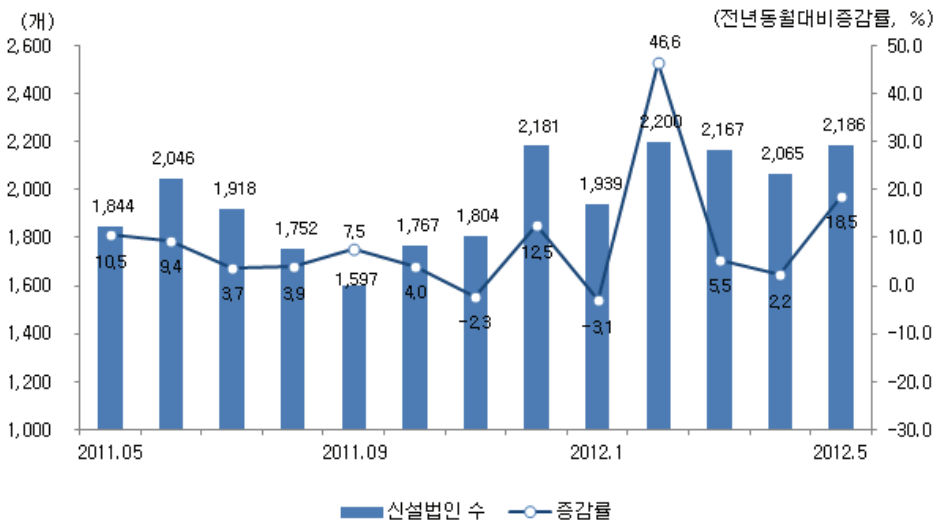
서울의 5월 신설법인 모든 업종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5월 신설법인 수 모든 업종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186개로 전월대비 5.9%(121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8.5%(165개)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8.0%(11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과 제조업도 전월대비 각각 6.5%(108개), 4.1%(10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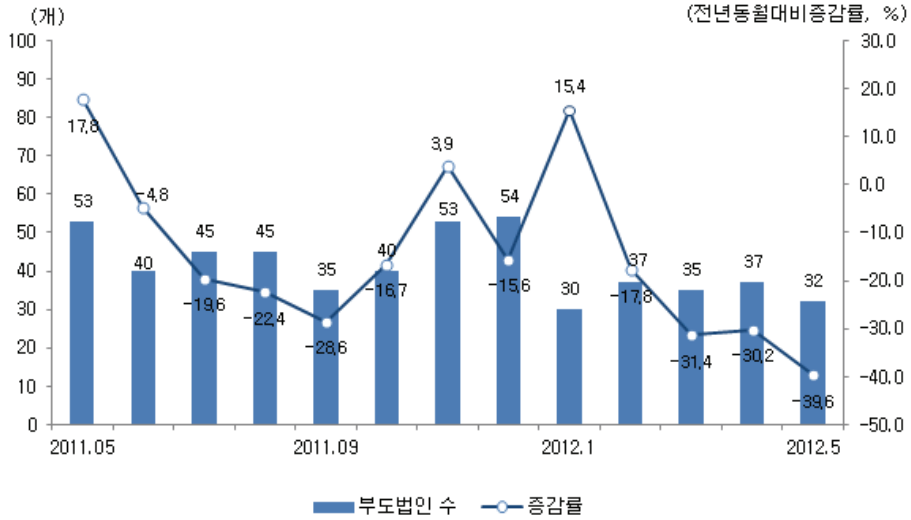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부도업체 수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2개로 전월대비 13.5%(5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9.6%(21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14.3%(1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전월대비 33.3%(6개), 9.1%(1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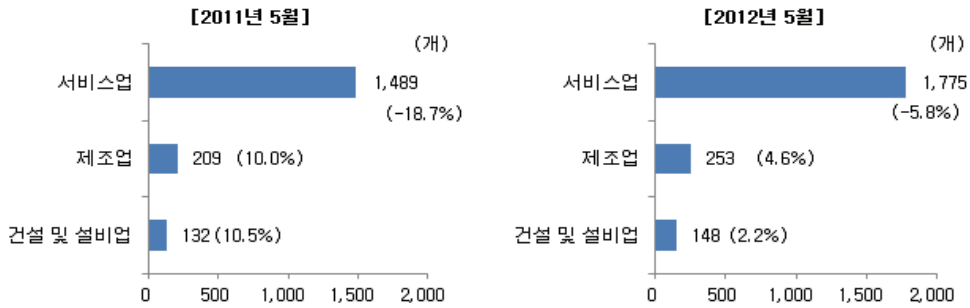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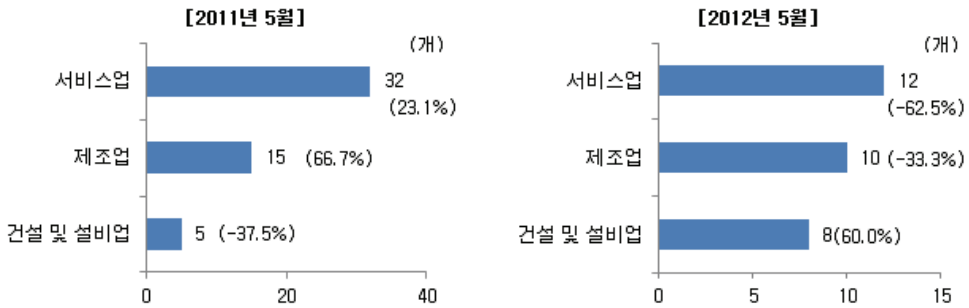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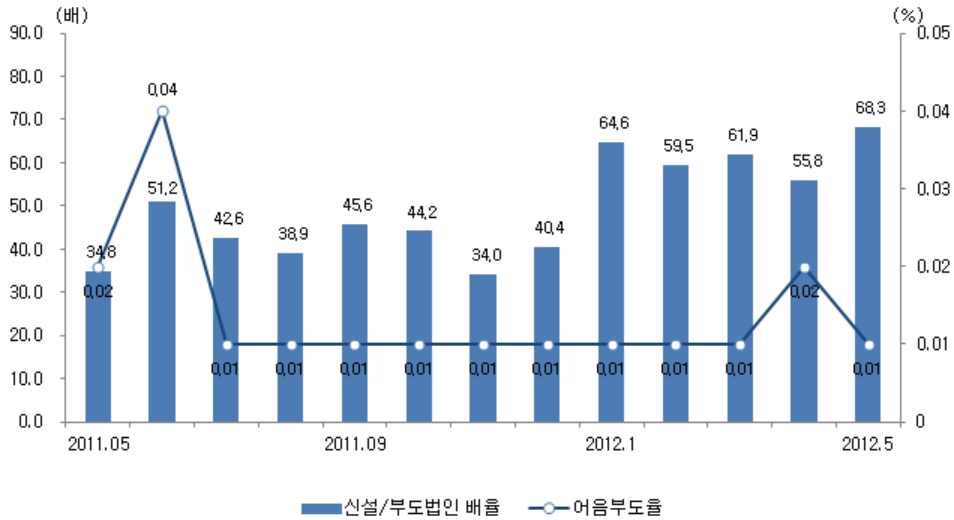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5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8.3배로 전월(55.8배)보다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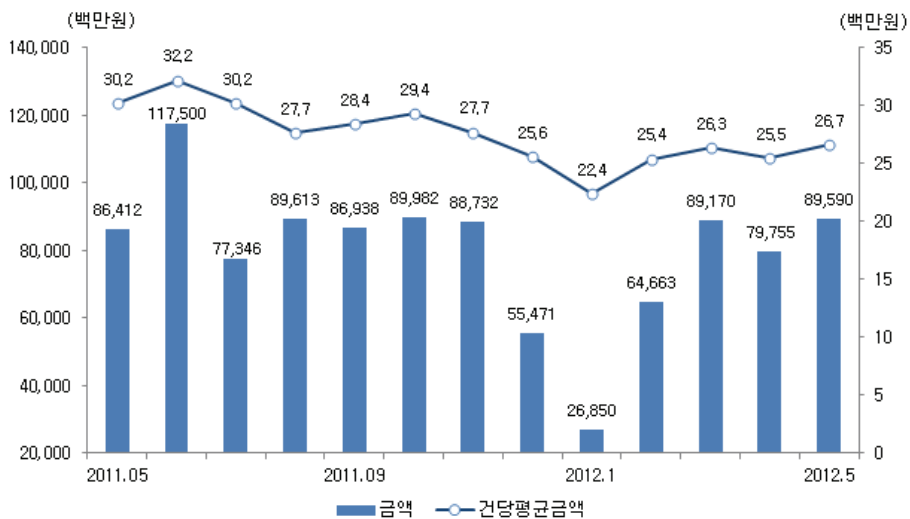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5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금액과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5월 중 3,361건, 89,590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7.3%, 보증금액 12.3%, 건당 평균지원금액 4.3% 증가
-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17.4%, 보증금액 3.7%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 11.9%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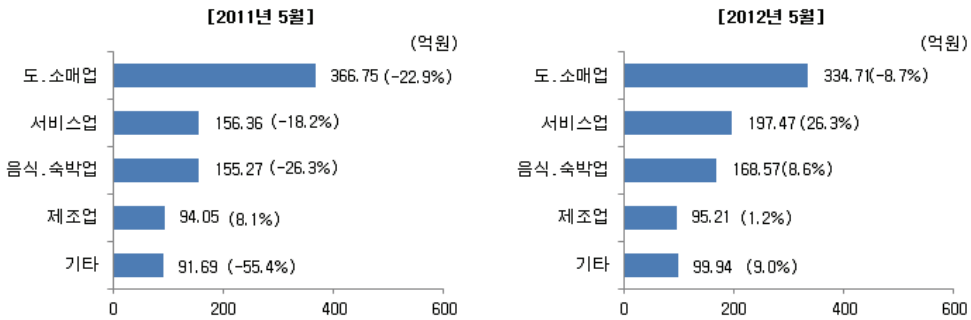
■ 서비스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소폭 상승

- 5월중 에 서비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22.0%로 전월(21.5%)대비 0.5%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은 37.4%로 전월(38.2%)대비 0.8%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서비스업종은 24.8%로 전월(24.5%)대비 0.3%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은 35.8%로 전월(36.9%)대비 1.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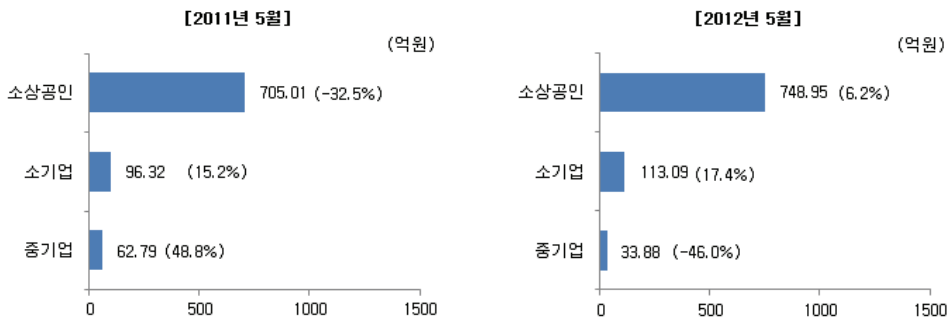
■ 소기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3.6%로 전월대비 2.0%p 감소하고 건수기준으로는 93.1%로 전월대비 0.6%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2.6%로 전월대비 2.0%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5.0%로 전월대비 0.7%p 증가하였고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3.8%, 건수기준으로는 1.9%로 전월과 동일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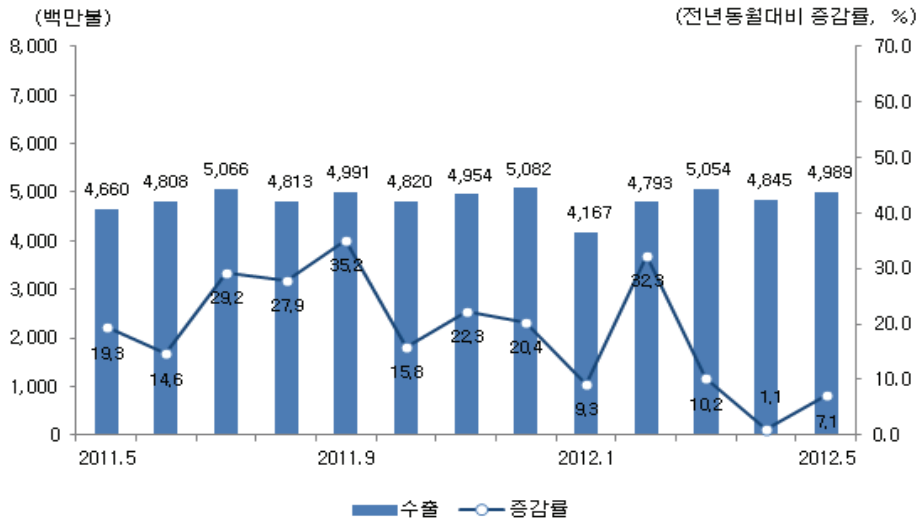
서울의 5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9.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한 반면 수입은 98.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
- 전국의 수출은 469.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하였고 수입은 447.4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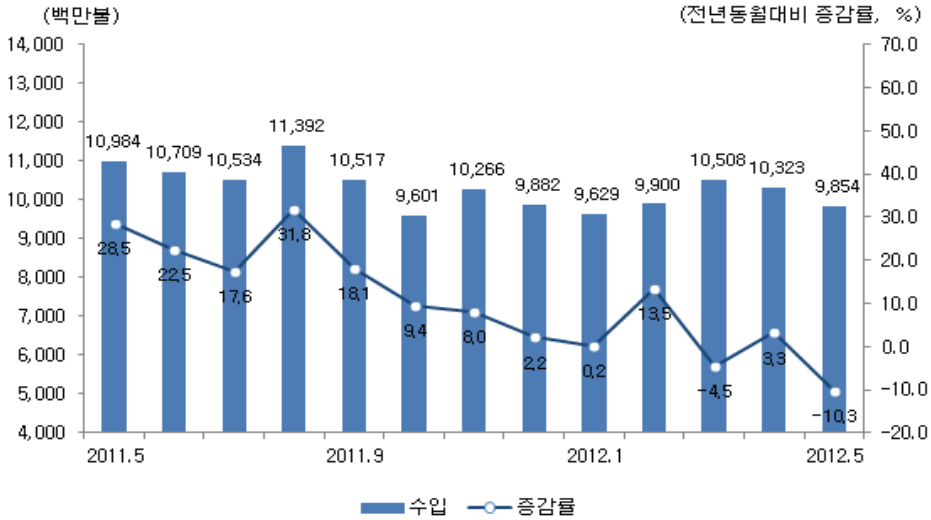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46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33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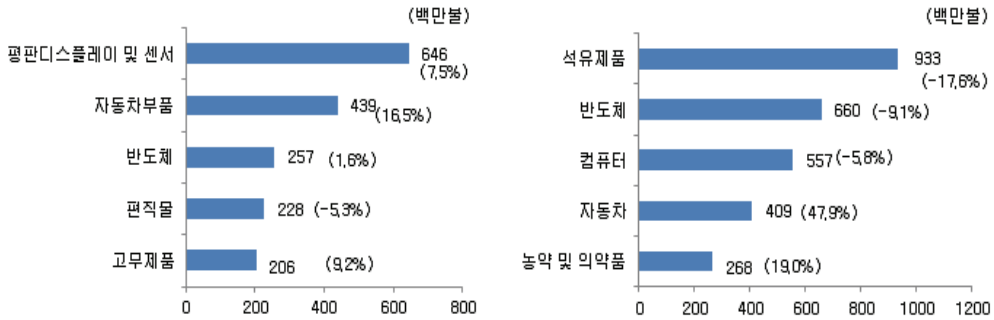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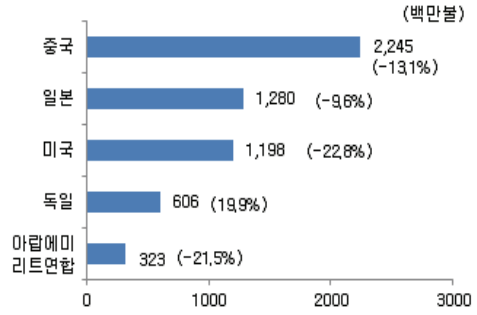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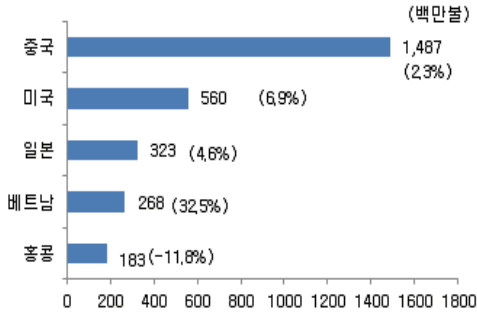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5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한 1,48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3.1% 감소한 2,245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표〉 5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560,112	6.9	합계	1,198,226	-22.8
	1	자동차부품	104,890	48.5	항공기및부품	163,938	-62.6
	2	고무제품	70,995	15.6	자동차	71,526	130.2
	3	무선통신기기	48,451	-28.1	곡식류	51,128	-24.6
싱가포르		합계	90,104	38.9	합계	252,483	1.0
	1	반도체	22,161	-3.5	반도체	113,095	6.5
	2	주단조품	7,131	1,531.5	컴퓨터	40,556	-3.8
	3	원동기및펌프	6,763	439.3	석유제품	13,663	-38.2
페루		합계	7,018	-17.4	합계	9,567	44.0
	1	합성수지	1,263	28.5	기타금속광물	3,326	-
	2	합성고무	1,191	519.5	금은및백금	3,030	-16.2
	3	고무제품	755	31.8	의류	821	-11.4
칠레		합계	11,703	-8.0	합계	68,989	17.9
	1	자동차	2,858	-22.8	곡식류	20,197	13.7
	2	고무제품	1,470	-12.9	동제품	17,490	74.8
	3	합성수지	1,158	53.0	육류	10,901	-3.6
인도		합계	99,782	-8.5	합계	217,365	13.8
	1	자동차부품	18,143	32.0	석유제품	145,006	64.4
	2	합성고무	17,744	-43.8	천연섬유사	13,736	-49.4
	3	합성수지	8,705	4.8	곡식류	6,041	128